

## 선의 해석과 중첩 효과로 표현된 작품연구

한아름

한남대학교 코스메틱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 Study of Artwork Expressed through Interpretation of Lines and Overlapping Effects

Ah-Reum Han

Doctoral Program in the Department of Cosmetic Science, Hannam University

**요약** 선(線)의 역사를 보면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선은 종교적, 주술적 의미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동굴 벽이나 바위 표면에 새겨졌다. 시대가 변하면서 문자가 발명되었고, 이는 의사 표현과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으며, 회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동양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에 따라 자연을 빌어 선으로 자신 뜻을 화폭에 담았으며, 그림을 그리기 전이나 후에 자신의 심상을 화폭에 적기도 하였다. 선을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대상의 생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운의 현현(顯現)으로 여겨졌다. 하나의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우주 공간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최초의 작용으로 간주 되었다. 선 자체는 공간의 깊이와 표현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많은 작가들이 문헌에 나와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선을 시대에 맞는 감각과 재료를 사용해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는 기록된 문헌과 자료를 통해 선의 개념과 동서양의 선묘적(線描的) 특성을 연구하고, 현대적 표현 방법으로 선의 중첩성을 활용하여 작품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선, 선의 중첩, 선의 반복행위, 드로잉, 선묘

**Abstract** When we look at the history of lines, we see that with the beginning of human civilization, lines were engraved on cave walls or rock surfaces for religious, shamanistic meanings, or to leave records. As time passed, characters were invented, which were used as a means of expression and recording, an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ainting. In the East, according to the philosophy of 'Wu Wei Zi Ran (無爲自然)', artists borrowed from natur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on the canvas with lines, and sometimes wrote their impressions on the canvas before or after painting. Lines were regarded not just as simple boundaries but as manifestations of the energy that evokes the vitality of the subject. Drawing a single line was considered the first act of life newly born in the cosmic space. The line itself implies the depth of space and elements of expression. Many artists have developed lines using contemporary senses and materials based on theories found in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concept of lines and the linea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nd West through recorded literature and data, and to study works using the overlapping nature of lines as a modern expression method.

**Key Words** : Line, Overlapping of Lines, Repetitive Action of Lines, Drawing, Line Drawing

\*Corresponding Author : Ah-Reum Han(marum@hanmail.net)

Received August 7, 2024

Accepted September 21, 2024

Revised August 30, 2024

Published September 30, 2024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류 문명 초기부터 선이 종교적, 주술적 의미와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진화하여 문자의 발명과 회화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동양과 서양의 예술에서 선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동양에서는 사물의 내적인 면과 정신적 표현을 중요시했으며, 서양에서는 형태와 윤곽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미술에서 선의 역할과 발전을 분석하고 다루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현대 미술에서 선은 단순한 조형 요소를 넘어 독립적인 장르로 성장하고 있다. 선의 단순화와 중첩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해석은 현대 미술에서 창의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의 선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현대 미술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고, 현대 미술에서 선이 어떻게 사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선의 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미술 작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점에서 시작된 선이 윤곽선, 운동감, 조형의지를 담아내는 기본 요소로서 회화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선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양에서 선은 사물의 내적인 면과 정신적 표현을 중요시했으며, 서양에서는 형태와 윤곽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선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고, 현대 미술에서 선이 어떻게 사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대회화에서 선의 역할과 발전을 다루며, 특히 선의 다양화와 독립적인 장르로서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의 단순화와 중첩을 통한 새로운 조형적 해석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현대 미술에서 선이 어떻게 창의성과 개성을 표현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1]. 이 과정에서 선의 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선의 중첩과 질감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미술 작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3 연구 내용 및 방법

선의 해석과 중첩 효과로 표현된 작품연구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선묘적(線描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의 해석과 중첩이 공간과 시간 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방법적인 연구에서는 선의 중첩을 통해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미술의 맥락에서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조형적 표현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술 이론과 실제 적용 가능한 예술 작품의 적용 방법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분석 연구는 그동안의 평면적 선의 중첩 표현이 었던것을 2019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전시된 작품부터는 아크릴물감을 주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선의 입체감 표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Secret Flower" 시리즈 작품을 통해 작가의 선 해석과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중첩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연구 범위는 "Secret Flower-Blue(1-1, 2)"와 "Secret Flower-Silver(1-1,2,3)", "Secret Flower-Gold" 작품을 포함하며, 작품 분석 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 번째 조형적 요소로 선의 형태, 굵기, 길이, 방향.

두 번째 테크닉으로 선의 중첩, 반복, 변형 등의 기법.

세 번째 표현방식으로 선을 통한 감정, 운동감, 공간감을 통해 작가의 창작 과정과 표현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본 연구의 주저자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며 분석 방법은 "Secret Flower" 시리즈의 각 작품을 관찰하고, 선의 조형적 요소와 테크닉 기록, 동양과 서양의 선묘적 특성과 비교하여, 작가의 선 해석과 중첩 효과를 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선의 중첩이 시각 예술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구현되고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명확히 해석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이론적 연구

#### 2.1.1 동양의 선

동양 회화에서 선은 단순한 물체의 경계와 사물을 재

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적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선의 이러한 특성과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발전해 왔다.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사용되는 지필묵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선을 통한 예술적 표현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선이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창조적 의도를 반영하는 매체로서 일찍부터 발전해 왔다.

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질감, 운동감, 양감 등을 표현하는 방법과 함께, 이를 통해 작가가 자신의 내면적 심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2]. 이러한 선의 강약, 속도, 농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 방법이 발전해 왔다. 특히, 작가가 붓놀림과 선의 조화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유의 기법은 시대별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붓의 형태상 끝이 가늘어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선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붓을 수직으로 잡거나 압력을 가하여 두꺼운 선을 그리는 등, 붓의 조작 방법에 따라 선의 굵기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붓과 종이의 각도, 먹물을 축이는 방법, 그리고 붓을 누르거나 들어 올리는 동작에 따라 필획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3]. 붓을 잡은 후에는 붓을 놓을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며, 손은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빠른 속도로 힘을 주어 당기면 중간에 기운이 생기고, 붓을 뗄 때는 가볍게 들어야 한다[4].

동양에서 선의 사용은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사의적 표현 방식으로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기 전이나 후에 작가가 자신의 심상을 화폭에 담은 과정을 포함한다. 동양 회화 전통에서 선은 다양한 이론 발전에 기여하며, 정신적 심미관을 담는 역할을 한다. 즉, 선은 질감, 양감, 운동감, 울동미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림에 생명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회화 기법이다[5].

선은 단순한 윤곽의 경계선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기운을 담는 역할을 했다. 그리는 사람의 감정과 대상의 형태를 나타내며, 상징적 표현과 내면의 정신세계를 중요시하는 동양 회화의 특성에서 작품에 사의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를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선이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작가의 깊은 내면을 반영하는 매체로 활용됨을 보여주었다.

## 2.1.2 서양의 선

선은 고대부터 원시인들이 벽화를 그리거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매개체였다.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자연을 관찰하고 고대 예술에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부활하였다. 개인의 독창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화가들은 자연을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선을 이용해 대상의 형태와 화가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이는 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다.

16세기에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와 미켈란젤로 디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 화가들은 많은 드로잉 작품을 남겼다. 이들의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중요한 시기를 표시하며 예술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17세기 페테르 파울 루벤스(Sir Peter Paul Rubens, 1577~1640)와 렘브란트 하르먼손 반 레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6]는 붓과 먹을 사용하여 명암 대조를 극적으로 표현한 소묘를 주로 다루었다.

18세기에는 명암 표현에 집중하였으며, 프란시스코 데 고야(Francisco de Goya, 1746~1828)는 붓과 먹 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작가적 기질을 나타냈으며, 인상주의 인상파 화가들은 소묘를 빛의 효과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일레르제르맹에드가 드가(Hilaire-Germain-Edgar De Gas, 1834~1917)는 앵그르의 선묘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엄격성을 보였고, 클로드 모네(Oscar-Claude Monet, 1840~1926)와[7] 다른 인상파 화가들은 순간의 인상과 태양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1890)는[8] 연필, 목탄, 흑연, 갈대 펜 등을 사용하여 선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공간과 형태를 표현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선이 감정을 지니고 있어,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으며, 자신의 그림들을 본뜬 데생을 하거나 편지에 스케치를 그려 넣기도 했다.

추상회화에서 파블로 피카소(Pablo Diego José Francisco de Paula Juan Nepomuceno María de los Remedios Cipriano de la Santísima Trinidad Rui

z y Picasso, 1881~1973)와[9] 앙리 마티스(Henri Émile-Benoit Matisse, 1869~1954)는 실선에 의한 회화적 표현 효과를 강조하였고, 추상적 소묘의 탄생을 자극하였다. 추상회화의 소묘는 선 자체의 성질을 살려 추상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핏 몬드리안(Pieter Cornelis "Piet" Mondriaan 1872~1944)은[10] 네덜란드 화가로 선을 사용하여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단순화했다. 화면을 수직과 수평의 선으로 나누어 기하학적 추상화를 표현했다.

헝가리 출신의 화가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 1906~1997)[11]는 옵 아트(Optical Art)의 대표 작가로, 선과 색상을 활용하여 시각적 착시 효과와 함께 기하학적 이미지와 색채를 조절하여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영국 화가,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 1931~)는[11] 처음에는 흑백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다양한 색채를 도입하여 시각적 착시 효과를 확장 시켰다.

작품은 반복적인 이미지의 형태, 크기, 색상, 배치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시각적인 착시현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작가들은 선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감정을 표현하며, 작품의 깊이와 공간감을 더해 자신만의 내면적인 해석으로 독특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 2.1.3 동양과 서양의 선의 의미 비교

동양과 서양의 선의 공통점으로 크게 세가지로 표현 수단, 기술적 발전, 상징성을 알 수 있다.

동양과 서양 모두 선을 중요한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선은 감정, 형태, 운동감 등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문화 모두 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과 테크닉을 발전시켰다. 붓, 연필, 목탄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선의 굵기, 길이, 방향 등을 조절하며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했으며, 선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작가의 내면적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양과 서양의 선의 차이점으로 내면적 표현과 외형적 표현, 도구와 기법, 철학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동양에서의 선은 단순한 물체의 경계를 넘어서 작가의 내면적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선의 강약, 속도, 농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

서양에서의 선은 주로 물체의 형태와 윤곽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선은 자연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명암 대조를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구와 기법에서 동양에서는 전통적인 동양화에서는 지필묵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선을 통한 예술적 표현이 상호 연결되었다. 붓의 형태와 조작 방법에 따라 선의 굵기와 형태를 변화시키며, 선의 중첩과 변화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

서양에서는 연필, 목탄, 갈대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선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공간과 형태를 표현하였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명암 대조를 통해 입체감을 강조하는 기법이 발전했다.

철학적 배경으로 동양의 선은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바탕으로 주로 자연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사의적 표현 방식으로 화폭에 담았다. 선은 질감, 양감, 운동감, 율동미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림에 생명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회화 기법이었다.

서양의 선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개인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선은 자연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예술가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의 선은 각각의 문화적, 철학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표현과 기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선이 예술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표현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2.2 선의 중첩을 활용한 현대적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

선의 중첩은 동일하고 유사한 요소를 배열하여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 착시 효과와 율동적인 회전[12]을 표현한다. 중첩은 형태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각적 깊이와 공간성을 경험하게 한다.

중첩은 한 단위가 다른 단위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긴밀한 결합을 통해 집단성을 형성하며, 화면에 변화의 깊이를 창출하고,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선은 다양한 형상을 띠며 여러 모습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축적과 중첩을 통해 확장된다. 예를 들어,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퇴적층은 오랜 시간 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며 고유한 선을 형성한다[13].

이것은 앵포르멜(Informal)로, '형태를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정형화되지 않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질감 표현하는 국제적 추상표현주의이다.

연구자는 선들이 중첩됨으로써 자연의 형상을 묘사하고 소멸과 생성의 영원한 흐름을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노력의 결실과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마티에르(matiere) 표현 방법을 채택했다.

### 3. 작품 분석



Fig. 1. Secret Flower-Blue(1-1,2), 162.2×130.3cm(×2), 2019.

이 작품은 100호 두 폭을 연결해서 완성한 작업으로 장지에 아교포수를 여러 번 덧칠한 뒤에 그린 계열과 블루 계열 분채로 밑 색을 작업한 후, 색이 스며들어 장지가 팽팽해지는 4~6시간 후에, 원하는 색감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 번 색을 덧입히는 작업을 했다.

작업은 율동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선들을 반복과 중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화면을 침투, 교차하며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었다. 선의 동적 움직임은 화면 밖으로의 확장성을 암시하며 시각적 착각을 일으켜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작품은 단순한 꽃의 형태를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정신을 표현했다. 끊임없는 창작 노력을 통해 층층이 쌓인 마티에르(matiere)는 잔잔한 물결과 출렁이는 바다를 연상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회로애락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부드럽게 연마된 인간의 삶을 표현했다. 연구자의 주관적 시선으로 그려진 선들은 중첩되면서 작업 과정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고뇌와 근심을 잊게 하는 치유의 효과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자연을 주제로 선을 활용하여 유한한 형상을 넘어서는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명료한 접근방법을 표현했다. 작품 'Secret Flower-Blue (1-1, 2)'에서는 선의 질감을 통해 드러남과 감춤을 결합하여 그림의 외부적인 요소까지 표현하고자 했다.



Fig. 2. Secret Flower-Silver(1-1,2,3), 162.2×130.3cm(×3), 2019.

이 작품은 'Secret Flower-Blue (1-1, 2)'과 유사한 기법으로 100호 세 폭을 연결하여 기본적인 밑 작업을 수행했다.

선의 반복과 중첩은 화면을 넘어 외부로 확장되는 느낌을 주고자 하였으며, 율동감과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들은 화면 중심에서 전체로 퍼져나가며 화면 전체를 선의 중첩을 통해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며 누비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Secret Flower-Silver(1-1,2,3)' 작품은 실버빛의 꽃이 찬란하게 만개한 모습을 통해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생명력을 표현했다. 선들이 층층이 쌓이며 서로 비슷하면서도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은 인생의 연속성과 복잡함을 상징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화면 속 중첩된 선들은 마치 흩어지고 펼쳐지는 날개 처럼, 각각의 사연을 담고자 하였다. 이 선들은 다양한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며, 각기 다른 인생 이야기를 묵직하게 품고 있어 관람객에게 시적인 감상을 제공하고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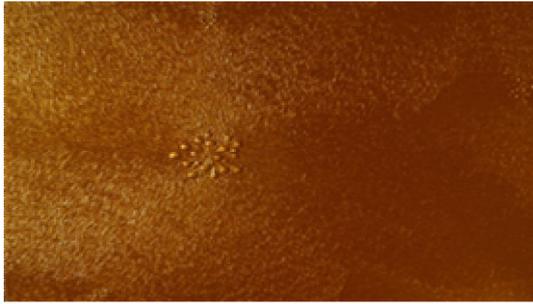


Fig. 3. Secret Flower-Gold, 162.2 × 130.3cm, 2018.

이 작품은 100호 이합 장지에 아교포수를 여러 번 두텁게 칠하고, 황토와 노란색, 주황색 계열의 분채로 초기 채색을 진행하여, 자연의 온화하고 따뜻한 색감을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그림의 깊이와 풍부함을 표현했다.

연구자는 원하는 밀색이 완성될 때까지 아크릴 물감으로 선을 중첩하며 윤곽을 더해갔다. 이러한 반복적인 선의 작업은 화면을 넘어서 시각적으로도 움직임과 강조하며, 관람자의 시선을 그림 속 움직임과 연결시켜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자 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꽃의 형태를 넘어서 작가의 내면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곡선과 중첩된 선들로 표현되었으며, 빛의 변화에 따라 감각적인 느낌이 계속 변화된다. 선들의 중첩은 깊은 두께감과 입체감을 부여하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무한한 확장성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 4. 결론

선은 조형 예술에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작가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재료와 기법에 따라 선으로 인물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무의식적인 스트로크,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한 제스처, 미완성을 추구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문자와 기호를 통합하여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이 만들어진다.

선의 중첩과 해석을 통해 연구된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는 선의 중첩이 시간성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무한한 공간의 깊이로 확장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선은 작가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감정 표현 도구로, 사물의 본질을 단순화시키며 강렬하게 감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동서양의 선에 대해 기존 문헌과 재료를 바

탕으로 독창적인 작업을 추구하며, 현대적 감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작품 활동에 반영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확립한다.

연구자는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여 선의 중첩을 통해 공간과 형태, 움직임 및 시간성을 탐구함으로써,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깊이를 부여하고자 표현 영역을 확장했다.

선이 주는 마티에르(matiere) 표현 방법을 적극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통해 더욱 심오하고 다층적인 작품을 완성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다.

학문적 가치로 이론적 기여와 현대 미술의 이해를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선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의 조형적 가능성과 예술적 표현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현대 미술에서 선의 역할과 발전을 분석함으로써, 선이 어떻게 창의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현대 미술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실무적 가치로 작가의 창작 활동 및 교육 활동에 활용 가치가 있다.

연구자는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여 선의 중첩을 통해 공간과 형태, 움직임 및 시간성을 탐구함으로써,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깊이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작가들이 선을 활용한 새로운 표현 기법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적인 활용으로 본 연구는 미술 교육에서 선의 중요성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선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자료의 제한성, 본 연구는 특정 기간(2019년 8월 1일부터 7일)의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간의 작품이나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선의 해석과 중첩 효과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줄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 분석, 기술적 발전과의 연계, 심리적 연구가 추가되어,

선의 증첩과 해석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의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기술적 발전과의 연계로는 디지털 아트와 같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선의 증첩과 해석을 더욱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이는 선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심리적 연구에서는 선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병행하여, 선의 표현이 인간의 감정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가 연구 방향을 통해 선이 예술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표현되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A. R. Han.(2006). Modern Expression Through the Overlapping Effect of Lines : Focusing on My Own Works.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eon.
- [2] J. Y. Kim. & J. W. Kim. (2007). A Study on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Water-Ink Animation: Focusing on the Line Expression in Te Wei's "The Cowboy's Flute". *Korean Society of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11, 87-104.
- [3] James Francis Cahill. (1999). *History of Chinese Painting: Three Thousand Years*. Seoul. Hakgojae Publishing.
- [4] J. T. Kim. (2004). Theory of Oriental Painting. Seoul. Iljisa.
- [5] K. S. Lee. (2004). Line Drawing. Seoul. Saenggakui Namu.
- [6] N. Y. Seo. (2023). *A Reformed Theological Reflection on "Death and Art": Focusing on 17th Century Vanitas Still Life Paintings*. Baekseok University, Cheonan.
- [7] S. W. Yang. (2014). *Expression of Works Using Pointillism and Collage: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Dongseo University, Busan.
- [8] M. X. Li. (2021). *The Impact of Multisensory Services on Museum Visitor Satisfac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9] S. H. Byun. (2015). *A Study on Chagall's Femininity and Anima*. Hannam University,

Daejeon.

- [10] E. J. Lee. (2015). *A Study on Nail Art and Art Masks Expressing Mondrian's Line Theme*. G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 [11] J. H. Lee & H. S. Park. (2009). Curtain Fabric Design by the Motive of Geometric Abstraction Pattern : Focusing on F/W trends 2009, 2010. *Th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Art&Design*, 12(1), 147 - 168.
- [12] S. W. Han. (1991). *Three-Dimensional Form*. Seoul. Mijinsa.
- [13] M. R. Park. (2021). *A Study of Ceramic Vase Design Applying the Lines in the Natur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한 아 름(Ah-Reum Han)

[정회원]



- 2003년 2월 : 목원대학교 동양화전공(미술학사)
- 2006년 8월 : 목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미술학석사)
- 2023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코스메틱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미술, 뷰티, 코스메틱
- E-Mail : marum@hanmail.net